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10.11.(제3775)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빛의 경로 빛은 소망

너울거리는 봄의 일렁임 속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 무딘 감각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낮게 내려앉은 햇살의 고운 곁은
지친 마음 구석구석을 생명의 기쁨으로 채워갑니다

어긋나고 갈라진 길 위에서
당황하며 길을 잃을 때면
흩어진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말간 침묵 속에 나를 낮추어 엎드립니다

(중략)

오늘도 열광 아닌 열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애욕 아닌 사랑으로
진실한 삶의 열매는 묵묵히 익어갑니다

- 김 석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20주

집례: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 입 레 송... 347장(1,3절)...다 같 이
※ 예배의부름.....집 레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
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 경 배 찬 송..... 28장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내 삶에서 마주한 고난에만 집중해서 믿음의
희미해진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생
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50번(시편 116)...다 같 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
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홀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값으로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 영 광 송..... 4장다 같 이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홍영기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묵회·봉헌기도.....손민승 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열 왕 기 상 17:17-24

신 약 베드로전서 1:6-7

찬 양... 주여 나를 ...찬 양 대
인도하소서

증 언.....손민승 목사

『 눈물의 자리에서 핀 믿음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 복 의 선 언.....손민승 목사

※ 후 주.....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남녀 선교회 월례회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7	영 아 부	6
주 일 2 부 예 배	240	유 치 부	12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0	유 초 등 부	19
첫 단 추 기 도 회	92	중 · 고 등 부	18
수 요 성 서 연 구	49	청 년 부	21
수요실시간방송예배	7	예 수 소 망 반	26
금 요 성 령 집 회	53	생 명 의 삶	13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8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546	합 계	115

현 금			
주 일 현 금	1,457,000	생 일 현 금	50,000
교회학교현금	212,100	선 교 현 금	40,000
월 정 현 금	5,790,000	특 별 현 금	100,000
십 일 조	8,370,000	창립70주년	200,000
감 사 현 금	3,140,000	추수감사헌금	20,000
합 계 19,379,1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10월 14일(수)10:30,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6과

본문:마태복음 24장 1-2절 외

- 금 주 기 도 : 교역자
- 다음주기도 : 소미숙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10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유임 윤희열	김동수 송대현 오수윤 정미애 한애선 전동순
안내위원	문정미	
강단헌화	(조순형 백문희) (김동수 전순남) 박세진	
수납위원	김동수 김명훈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이명근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영끌의 세상에서 천국의 영끌하기”

구 약 잠 언 11:24-25

신 약 디모데전서 6:17-19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오늘날 젊은 세대의 ‘영끌’ 현상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있다면 단연 ‘영끌’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이지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등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것을 ‘영끌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이미 1억 원을 넘어섰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토록 영혼까지 끌어모아 은행대출을 받고,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일까요? 그 바탕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낙오한다’는 깊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월급만으로는 소위 계층 이동이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삶과 영혼을 담보 잡히면서까지 재물을 쥐려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영끌’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영끌 vs. 천국의 영끌

이러한 영끌의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또 다른 영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의 영끌, 하나님 나라의 영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19절을 다시 보실까요.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의 영끌’과 ‘천국의 영끌’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끌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모든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뭐라고 하셨나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재물(uncertain wealth)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있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끌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시간, 재능, 물질 등 내 삶의 모든 것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영끌과 천국의 영끌의 세가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목적과 동기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영끌의 동기는 앞서 보았듯이 불안감입니다. “지금 모으지 않으면 뒤처진다”, “내 힘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영혼을 끌어모아 통장과 자산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끌의 동기는 감사와 신뢰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실 것을 신뢰하기에, 물질을 나 혼자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기꺼이 흘러보냅니다.

둘째로, 투자처와 유효기간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영끌은 이 땅의 구좌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이 땅의 보화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 재물은 언젠가 놓고 가야 하며,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마태복음 6장 19절)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영광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천국)에 투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장 20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장부에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결과와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25절입니다.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의 영광은 과도하게 아끼고 끌어모아도 마음은 늘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며, 영혼이 피폐해져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손을 펼쳐 홀어 구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디모전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광’을 최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전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초촌(Chosen)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꺼운 헌신과 선한 나눔을 통해, 무려 86명의 우간다 어린이들이 결연을 맺고 삶의 희망과 사랑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구좌를 채우기 위해 영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간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천국 계좌에 보물을 쌓는 ‘천국의 영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초촌 캠페인만이 아니죠. 글로벌 6K를 통해서 케냐의 수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셨고, 목장별 이웃사랑나눔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셨습니다. 또 반찬봉사와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교

회 내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나눔의 손길을 펴는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청년 바보의사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 1월 어느 날, 영락교회의 한 젊은 성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4000여명의 조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후 이렇게 많은 조문객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찾은 사람들 모두 그의 영정 앞에서 흐느껴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을 계기로 그 청년의 삶이 조명 받게 되었고, 몇 년 후 [그 청년 바보의사], [그 청년 바보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33세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난 고 안수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책에 기록된 몇가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 들고 지방까지 갔다오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근무하던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참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고 안수현 형제는 항상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은행계좌에는 그달 자동차 할부금을 제하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세대 속에서, 낙오될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영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와 의미임을 몸으로 외쳤던, 이 시대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역시 33세의 나이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밀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적 재물관: 자족과 성실

저는 고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를 접하며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성경 속 질문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어디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스스로 만족하라는 가르침과, 열심을 품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쉽게 조화되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면 성실할 필요가 없고, 성실히 살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족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삶의 목표와 열정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족의 믿음이 삶의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성실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높은 학위를 따도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납니다. 바쁘게 애쓰며 살아가지만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성실의 믿음이 끊임없는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자족하며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 청년 의사의 이야기를 접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족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의 가치이며, 성실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가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항상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굶주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성실해야 합니다. 결코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족과 성실의 경우가 뒤바뀔 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해 버리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영끌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천국의 영끌을 살아가는 자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기름진 땅에 성실이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천국의 영끌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공부 안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공부해서 남줘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은혜 받아 남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천국의 영끌자의 원조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천국의 영끌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 지식, 비즈니스, 자녀, 꿈, 진로, 건강, 재능...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움켜쥔 손을 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 흘려보내며, 주님 약속하신 풍성하고 윤택하고 행복한 천국의 영끌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이선균 차경연) 박지연 (권혁성 손양민) (김명훈 김수미) (김한중 김현숙) (송재용 홍영기) (신충우 김영미) (강용국 노복순)
(김명중 장계순) 노선우 노현우 박선례 (박창환 조영신) (손세윤 곽정민) (이성호 강숙희) (이용학 백현애) 이진숙 (이활 김미영)
(전상주 최옥자) (조규성 정미애) 조순임 조혜자 (차상옥 석진숙) 홍정자

월 정 헌 금 김준자 (심대섭 류은숙) (조영익 태성희) 탁순희 (강성배 박봉주) (권호진 정장미) (김광선 김영중) (김상진 이수미) 김소희
(김종근 이연석) (김준식 김민식) 김지민 (노정훈 안명숙) 박석순 (박정화 조인자) 박현중 (손희열 윤순례) (신영수 유경순)
(산용식 최진애) 유명순 유영순 유윤자 윤희열 이경애 (이능하 김기열) 이성주 이인숙 이찬주 (정성규 심성희) 홍순옥 홍윤기

감 사 헌 금

(백구영 조혜자) : 평생을 동행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송재용 홍영기) :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정희A : 하나님 은혜로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아팠지만 다 나았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선옥 구용연) : 성령임기 좋은 계절, 많은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김진경 김보경) : 김진경 이직, 김보경 장학금 꼭 이루어주소서.

로튼가족 : 추석을 맞아 우리 큰 가족을 함께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미숙 :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손희열 윤순례)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순호 윤미선) : 귀한 생명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송주영 : 모든 식구들 건강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영관 : 생일 감사합니다.

(오정규 조은지) :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경순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영화 :故김덕화 권사의 2주기 추도일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추도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해자 :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기범 차진영 훈민)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환 최선규) :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연석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실 황문연) :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진경 :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순임 : 주님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 상급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조일현 조운정) :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현, 윤정이의 미래를 책임져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형준 김미경 은서 은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순옥 : 주님 사랑합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 드립니다.) (첫 열매 감사합니다.)

생 일 헌 금 심영관

선 교 헌 금 노정훈 오혜리 이진숙

추 수 감 사 헌 금 이순희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윤해자 창립70주년(전교인수양회) 6남선교회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씨채널 “아현중앙교회 70주년 영상” 방송 : 17일(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총 목자모임 : 오늘 오후 2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교회학교 야외예배 : 18일(주일), 유치부는 주연팜, 영아부, 유초등부는 여의도, 중고등부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있습니다.
- 호산나 찬양대 :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분은 이한나 권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46회 서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11월 2일(월) ~ 5일(목), 창천교회에서 있으며, 3층 안내석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사 : 신진섭목사 (현존교회 담임), 오전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저녁반 월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특강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모임안내

- 여선교회 계삭회 : 13일(화) 10시 30분에 연희교회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 엠마오가는길 게더링 : 15일(목) 오후 7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 : 17일(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까지 한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제7여선교회, 교회주방을 후원해 주신 서태희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0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5일(주일)
- 지역나눔 반찬봉사 : 24일(토)
- 목회세미나 : 27일(화), 방주교회

■ 금요성령집회(10월 16일)

찬	양	메나헴 찬양단
설	교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1-10)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10월 18일)

대 표 기 도	김 수 미 장로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
- 다음 주 : 2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